

남동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국비 6억 확보…안전성 강화

남동구는 '남동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이 행정안전부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지역 현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동국민체육센터(2006년 건립)는 정기 안전 점검에서 ▲수영장 구조재 부식(C등급) ▲지붕 누수(D등급) ▲주차장 2층 바닥 방수층 손상(C등급) 등 주요 시설물의 노후가 확인돼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냉·난방설비 노후로 인한 기기 정지 및 화재 위험, 여름철 수영장 수온이 적정 기준(25~28°C)을 초과하는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용 불편이 커졌다.

남동구는 이번 개보수사업 통해 수영장 구조 지지대 보수, 내부 환기구 교체, 곁로 방지 공사와 함께 노후된 시스템 냉·난방 설비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목적체육관 지붕 방수 공사와 주차장 2층 바닥 정비를 병행하고, 여름철 수온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냉각기와 순환펌프 등을 포함한 수영장 순환 냉각 시스템도 새로 설치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성과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전 남동구청장)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후시설을 조속히 정비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서구, 온라인 통합예약

서비스 '여기서해' 오픈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지역 내 모든 교육강좌와 시설 예약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여기서해'를 12월 19일(금)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여기서해'는 기존에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관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뿐만 아니라 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년센터, 가족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연, 강좌, 체육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예약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쉽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구는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 명칭 공모를 진행하여 132건의 명칭이 접수되었으며, 내부 검토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여기서해'라는 명칭을 확정했다.

'여기서해'는 '여기'와 '서해'를 합쳐 '여기서해'와 '여기 서해'의 중의적 표현으로 서(해) 구의 모든 예약 정보를 모아놓은 서비스를 이용해 예약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하린 기자

인천시, 공공서비스 통합 앱(App) '인천e지갑' 공개

블록체인 기반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 26년 1월 정식서비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8일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시민참여단과 구청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공개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통합 앱인 '인천e지갑'의 첫 선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블록체인기반의 비대면 공공서비스 '인천e지갑' 앱을 소개하고, 시민 의견과 업무 활용 방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정식서비스에 앞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인천e지갑'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ID'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통합 제공해 시민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비대면 자격확인, 전자증명서 보관 및 제출, 월스톱 신청, 시민참여 체인리지 서비스 등이 있으며, 특히 '인천e지갑'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로는 자원순환 활동을 관리하는 에코허브플랫폼, 스마트 패스 및 셔터 관광 이력을 관리하는 섬페스, 그리고 초기 아이디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보호 플랫폼 등이 함께 제공된다.

인천시는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전에 선정된 100명의 시민참여단과 함께 서비스 안정성과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월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그동안 인천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시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해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인천e지갑' 앱은 그동안 추진해온 블록체인 사업의 성과를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시민들께서 인천e지갑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인천e지갑이 시민참여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재사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1회용품 감축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행정'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전반에 이르는 1회용품 사용 극복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먼저 공공부문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공공청사 내 디파워 컵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 1인 1컵블러 사용을 생활화하는 한편 디파워 컵 인프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심하린 기자

도제도약지구 협의체 구축으로 직업교육 생태계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7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도약지구' 협의체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직업교육 모델로 학생들이 재학 중 실무 역

량을 기르고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시청이 주관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간담회'와 함께 열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산업계·학교·대학·유관기관 간 협

력 구조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설명회에서 2024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부평공업고등학교 사업단이 전국 78개 사업단 중 종합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인천 도제학교 8개 사업단 중 5개 사업단이 최우수 등급(S)을 받은 우수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학교 단위 운영을 넘어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도제도약지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직무 중심 인재 양성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제도약지구는 학교와 기업,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직업교육 모델"이라며 "지자체와 산업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중구, 우리 아이 등굣길 교통안전점검

중구(구청장 김정현)는 겨울철 안전 사고 취약 시기를 맞아 원도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등굣길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에 맞춰 시행된 이번 교통안전점검에는 김정현 구청장, 교장,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를 위해 12일에는 신광초등학교, 17일에는 신흥초등학교를 방문해 횡단보도·교차로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지도를 펼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唤起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을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 중구는 이번에 점검이 이뤄진 학교를 포함해 원도심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방호울타리와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노후 교통표지판과 미끄럼방지포장을 정비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은 향만 물류 시설 등이 소재해 대형 차량의 위협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신장이 작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도로 횡단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 중이다.

김정현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청 강화섬쌀 공급 업무협약



회 참여 등으로 강화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왔으나, 복잡한 유통망과 까다로운 공급 기준은 벽이 되어 대부분 일회성 공급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그 벽이 무너졌다. 지난 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부터 판로 대상 범위를 다변화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였고,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강화섬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세일즈 행정으로 공을 들인 결과, 전국 최대 소비시장인 서울에서의 안정적 공급망 첫 확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중구청 협약은 단순한 납품을 넘어 1천만 서울 시민에게 강화섬쌀의 우수한 품질이 통했다는 자신감과 서울에서 확보된 첫 번째 안정적 공급망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강화농산물의 서울시 전역 확대 공급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판로 확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심하린 기자

주민건강검진 및 안전·안압검사 위·수탁 협약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8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와 주민건강검진 및 안전·안압검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옹진군 도서주민들이 의료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쉽지 않은 의료취약지역에 현지에 출장하여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와 재계약을 통해 추진됐다.

검진대상은 20세 이상 옹진군 주민이며 가능하고, 검사항목은 심전도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일반검진 및 암검진 30여종 검사와 안과검사(안저인암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내 7개면을 순회검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주민의 건강관리를 도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